

#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박수원\*\* · 김새별\*\*\*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다. 사회적 관계성의 경우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고 공동체의식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만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가 아닌, 사회와 세계를 위한 공동체의식으로 개념화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한국아 동청소년패널 자료 중 3차, 4차,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 식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의 질이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원인 변인으로 역할하며, 동시에 공동체의식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변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처치들을 통해 청소년의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현실 에서 마주하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의 질이 어떠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적 개입 시 교우관계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증진에도 초점을 맞춘다면 효과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공동체의식, 사회적 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 이 논문은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신저자, kisabr@daum.net

## I. 서 론

2015년 교육계의 최대 화두는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과 함께 인성교육은 타인 및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함양을 위한 덕목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 핵심에는 공동체의식이 있다. 특히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자와 정책가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 왔다. 청소년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대인태도, 행동양식과 더불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여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며, 향상된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진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교육적 처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을 '사회적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민성, 2015). 청소년은 시기적 특성상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대해 나간다. 예컨대 청소년은 중요한 관계적 입지를 차지하는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포함하는 소속감, 상호영향이나 타인과의 정서적 연계가 발달하게 된다(이은주, 2011).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중화, 유희철, 2009; 강가영, 장유미, 2013). 그러나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청소년의 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이 공동체의식과 갖는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대부분의 처치들은 청소년의 수련 활동, 봉사활동, 시민적 참여활동이나 교내 동아리 활동 등(Youniss, McLellend & Yates, 1997; 박재숙, 2010)과 같이 일정 시간 구조화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시간적, 물리적 제한을 가진다.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다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시공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 관계성의 질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한다면,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봉사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진단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알려주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 간의 관계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공동체의식 또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회적 책임감이 증진됨과 동시에 대인관계 기술 및 문제해결 기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Moley, Mcfarland, Miron, Mercer & Ilustre, 2002).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허인숙, 이정현, 2004; 박미진, 2010). 인간발달에 있어 개인과 환경은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론에 근거해 볼 때에도(Lerner, 2006; Overton, 2010)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 간의 일방향적 관계 보다는 양방향적, 상호인과적 관계를 종단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 두 변인의 일방향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한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로 두 변인의 관계를 규명하려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 중 어떤 변인이 다른 변인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사회적 존재로서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우, 교사, 부모가 청소년에게 가장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주변인물로 여겨지며 청소년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박미숙, 2010) 사회적 관계를 대상에 따라 교우, 교사, 부모관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공동체의 범위를 학급이나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와 세계로 규정하고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식 간 종단적 상호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적 관계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갖는 심리적 구인으로, 집단이나 공동체, 조직 안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유대 등을 전제로 한다. 학자마다 정의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바라보는 연장선상에서 집단과의 관계, 집단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Sarason(1974)은 공동체의식을 사회구성원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의 인식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박재숙(2010)은 어떤 집단이나 조직, 사회의 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소속감과 상호의존성, 상호헌신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공동체의식은 관계 안에서 타인과 연결된 감정,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식은 사회적 연대감과 책임감의 형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행동적 형태로 발달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김원태, 2001). 즉, 공동체의식은 의미 있는 행동에 대한 실천의지로 측정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공동체의식이 주변에 대한 걱정의 빈도나 타인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에의 참여와 행동으로 발현된다고 보고한다(김선숙, 안재진, 2012).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공동체의식의 잠정적 교육대상이 될 수 있다(전득주, 1992). 그러나 청소년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해가기 시작하며(강가영, 장유미, 2013)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여러 가치와 태도, 행동을 학습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익힌다(임영식 외, 2009). 특히 현대사회는 이전보다 더 다양해진 인구학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며 사는 세계화시대이므로,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게 도와주는 공동체의식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청소년의 시기적 특성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공동체의식 연구는 이들의 공동체의식 발달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수반될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 2. 사회적 관계성

사회적 관계성은 사회적 능력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을 빌려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의 접근이나 학자의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능력은 개인의 행동양상이 사회화된 정도, 혹은 개인이 집단에 참여하는 정도로써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을 일컬으며, 사회성보다 다소 광범위한 의미로 주로 다른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이숙, 정미자, 1995). 또한 개인이 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 또래 혹은 성인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Zigler & Trikett, 1978)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 외 Dodge(1985)나 Merrell(1999), Han과 Kemple(2006)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정의도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서의 능력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이란 ‘지속적인 보호와 지지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삶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상호 연관된 관계의 집합체’(Gabrino, 1984) 내지는 ‘일정한 경계를 바탕으로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이 지속되며 사회벽 구조를 구성하는 대인적 조직’(이진수, 2000) 등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개념도 사회적 능력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부모, 교사, 친구와 맺는 관계를 살피고 있으며(정효선, 2007), 이웅택, 유난영, 주현주와 임승희(2014)의 연구에서도 가족과 친구, 이웃과 조직 구성원과의 직접적 대인관계로 한정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가정, 교실, 기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주요 인물들이 부모와 교사, 또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 3.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

아동은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Han & Kemple, 2006). 이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이 집단에 속해있다는 사실과 타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각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이 발달하게 된다. Zwannas와 그의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능력을 통해 아동이 타인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곧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사회적 관계 확장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유익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물론 두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청소년기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져 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발달이 수반되는 시기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이 공동체의식과 연관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은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있다.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및 사회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중화, 유희철, 2009) 청소년 주변에 존재하는 지지적인 사람의 수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Pretty, Andrews & Collette, 1994). 청소년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대인관계에서 개인이 느끼는 지지감은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한 특성이 되는데, 그로 인해 지금까지의 사회적 관계망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용어의 혼용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타인으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그 외에도 상호작용의 빈도(강성희, 1996), 친밀도나 만족성과 같은 상호작용적 특성(이수희, 2004)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이 타인과의 관계적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인 만큼, 타자와의 연결 관계 및 집단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유대로서의 공동체의식과 다분히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연관 있는 사회적, 관계적 요인으로는 주로 청소년이 맺는 주요인물과의 관계를 들 수 있으며,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선행연구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김중화, 유희철, 2009). 또래애착은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로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동시에 공동의 노력을 촉

진시켜 주며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친밀한 또래관계는 서로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여, 공동체의식이 증진될 수 있게 한다(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무엇보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발달하면서 또래 집단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교우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발달의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이춘재, 1988) 결과적으로 그들은 교우 집단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의식적, 무의식적 판단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일련의 역할을 하며 그들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준다.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Rutter, 1985)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같은 자아관련구인이 공동체의식을 예측했던 것을 생각해볼 때(김지혜, 2012; 김선숙, 안재진, 2012) 교사와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학업적 대처, 관여 등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였는데(문은식, 2002) 그 외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도 청소년과 교사간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음(문은식, 김충희, 2002; Birch, Ladd, 1996)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사 관계가 학교적응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므로(조명주, 2007),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의 높은 상호관련성(김상미, 남진열, 2011)을 고려해볼 때, 결국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김상미와 남진열(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자녀가 갖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느낌, 유능감이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Marion, 1997)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토대로 사회적 규범, 규칙과 인습을 습득하고 사회질서를 배우게 된다(Damon, 1997). 자녀는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를 학습하고 모방하며(이경희, 1995)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행동양식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오미섭,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그가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맺은 애착관계의 성격과 부모의 가치관, 행동 양식으로부터 물려받은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이므로 부모와의 관계와 무관할 수 없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 연결 관계를 밝힌 경험연구가 많지 않으나, 한 개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배경으로 가정, 학교, 사회의 세 가지로 분류된 차원 중에서도 가정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

(정원식, 1987)을 고려해볼 때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과 같은 자아관련 심리적 구인이 공동체의식의 유의한 예측변인(박가나, 2009; 문성호, 문호영, 2009; 이성은, 2009)으로 작용하므로, 청소년의 자아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Watson과 Protinsky(1988)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응결력과 적응력에 있어서 조화를 잘 이루는 가정의 청소년은 비교적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이차선, 2000)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그의 공동체의식이 비교적 높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고 반대로 공동체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그 배후에 부모와의 조화로운 관계가 뒷받침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 중 중1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지난 2010년부터 총 5차년도까지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3차-5차(2012년-2014년)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표집은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통해 전국단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표본 수는 3차년도 2,259명(남 1,140명, 여 1,119명), 4차년도 2,108명(남 1,075명, 여 1,033명), 5차년도 2,091명(남 1,067명, 여 1,024명)이었다. 분석은 5차년도에 응답한 2,091명을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 2. 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을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의 세 가지

로 분류하였다. 즉,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와 공동체의식의 네 가지 변인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문항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변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나(1: 매우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및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사회적 관계성

교우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이동청소년중단패널 3차, 4차, 5차에 포함된 학교적응과 관련된 문항 중, 교우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우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역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변인측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Bamette, 2000; Schriesheim, Eisenbach & Hill, 1991) 역문항 하나를 제외하고 4문항(EDU2C01, EDU2C02, EDU2C03, EDU2C05)을 사용하였다. 실제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도 역문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역문항을 포함할 경우 3차년도는 .54, 4차년도는 .62, 5차년도는 .62). 교우관계 4문항의 신뢰도는 3차년도와 4차년도는 .70, 5차년도는 .68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놀이나 모듬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이다. 교사관계의 경우 학교적응과 관련된 문항 중, 교사관계를 나타내는 5문항(EDU2D01, EDU2D02, EDU2D03, EDU2D04, EDU2D05)을 사용하였다. 교사관계 5문항의 신뢰도는 3차년도는 .84, 4차년도는 .81, 5차년도는 .80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시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이다. 부모관계의 경우 양육방식 중, 방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때 부모관계의 방임을 나타내는 전체 4문항 중, 첫 번째 문항의 신뢰도가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으로 확인되어 이를 제외한 세 문항(FAM3A02, FAM3A03, FAM3A04)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부모관계 3문항의 신뢰도는 3차년도는 .80, 4차년도는 .73, 5차년도는 .77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시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 보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이다.

## 2)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본래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으나, 첫 번째 문항인 “나는 주변에 어려움이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의 경우 본 연구에서 관심변인으로 설정한 교우관계와 혼돈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맺는 관계가 아닌, 사회나 세계를 향한 공동체 의식에 대한 본 연구의 관심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공동체의식 3문항(COM2A02, COM2A03, COM2A04)의 신뢰도는 3차년도는 .79, 4차년도는 .74, 5차년도는 .74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이다.

## 3. 분석 방법

변인들의 내적 일치도와 기술통계 및 상관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 모형은 AMO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부모관계의 세 변인과 공동체의식 간 상보적 관계를 각각 확인하기 위해 세 번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였기에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Arbuckle, 199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검증을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측정동일성과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측정동일성이란 잠재변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종단연구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변인의 개념이 변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측정변인의 계수에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측정동일성을 확인한다. 경로동일성이란 한 시점의 잠재변인이 다음시점의 잠재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성 변인(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과 공동체의식 각각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회귀계수가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를 검증한 뒤 교차회귀계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지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동일성은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된 잠재변인의 오차항 사이의 공변량이 시간경과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식 각각의 오차항간의 공변량이 다음 시점과 동일한지를 검증하였

다. 측정동일성과 경로동일성, 오차공변량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8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형1: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모형2: 사회적 관계성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계수를 세 시점에서 모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모형2에 더하여 공동체의식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계수를 세 시점에서 모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4: 모형3에 더하여 사회적 관계성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5: 모형 4에 더하여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6: 모형 5에 더하여 사회적 관계성에서 공동체의식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7: 모형 6에 더하여 공동체의식에서 사회적 관계성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8: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 의식의 오차 공변량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이때, 모형2와 3의 경우에는 측정동일성 검증에 관한 모형이며 모형4과 모형5는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 모형 6과 모형7은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검증, 마지막으로 모형 8은 오차공변량 동일성 검증에 관련된 모형이다. 측정 동일성 검증(모형2, 모형3)을 위해서는 모든 잠재변인의 관계를 상관으로 연결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모형4 이상에서 경로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를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비교는 CFI(Comparative Fit Index)값의 변화량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TLI(Tucker-Lewis Index)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때, CFI의 값이 .01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으면 동등화제약이 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Cheung & Rensvold, 2002).  $\chi^2$  차이검증의 경우  $\chi^2$  검증과 마찬가지로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chi^2$  차이검증을 이용하지 않았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i^2$  검증과는 다른 적합도 지수(fit index)를 고려한 결과,  $\chi^2$  검증에 비해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모형의 적합도와 동시에 간

명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절대적합지수, RMSEA와 증분적합지수, TLI, CFI를 사용하였다. 모형 판단의 기준은 RMSEA의 경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하고(Browne & Cudeck, 1993), TLI와 CFI의 경우에는 값이 높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Hu & Bentler, 1999; 홍세희, 2000). RMSEA의 경우 90% 신뢰구간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오차항 사이의 공변량은 허용되지 않으나,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된 종단적 자료의 경우에는 오차항 사이의 공변량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Bollen, 1989; Pitts, West & Tein, 1996)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측정변수의 측정오차가 단순한 무선 오차뿐 아니라 체계적인 변량을 포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오차항끼리의 상관을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정규성 분석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부모관계의 세 가지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들 간 상관은 .13에서 .50사이로 모두 유의하였으며 각 변인의 왜도는 -0.42에서 0.17사이였고, 첨도는 -.41에서 1.10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찰변수들 모두 왜도<|2|, 첨도<|4|의 다변량 정상 분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ng, Malik & Lee, 2003). 그러나 다변량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ardia의 다변량 편포도= 33.96,  $p < .001$ ). 다변량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모수 추정 시 임계치 값을 상향 편향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변수의 정규성 검증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으며(배병렬, 2011), 다변량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할 경우 추정된 모수가 신뢰롭다는 보고(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Olsson, Foss, Troye & Howell, 2000)와 표본의 크기가 120 이상일 경우에는 비정규성을 보이더라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는 보고(Bentler & Yuan, 1999)를 바탕으로 자료를 변환하지 않고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교우관계3차	1											
2.교우관계4차	.36	1										
3.교우관계5차	.38	.50	1									
4.교사관계3차	.40	.23	.26	1								
5.교사관계4차	.16	.47	.29	.31	1							
6.교사관계5차	.19	.30	.46	.31	.42	1						
7.부모관계3차	.28	.22	.23	.22	.20	.18	1					
8.부모관계4차	.20	.38	.29	.19	.31	.22	.41	1				
9.부모관계5차	.23	.26	.38	.21	.20	.32	.42	.48	1			
10.공동체의식3차	.28	.17	.22	.32	.20	.20	.25	.17	.15	1		
11.공동체의식4차	.22	.36	.26	.23	.33	.21	.17	.25	.16	.36	1	
12.공동체의식5차	.24	.22	.38	.25	.21	.34	.13	.21	.24	.37	.44	1
평균	3.12	3.14	3.15	2.89	2.88	2.90	3.22	3.12	3.27	2.78	2.92	2.91
표준편차	0.45	0.42	0.39	0.63	0.58	0.56	0.58	0.52	0.51	0.65	0.56	0.56
왜도	-0.20	0.03	0.17	-0.13	0.00	-0.03	-0.42	-0.07	-0.07	-0.23	-0.18	-0.21
첨도	1.10	0.63	0.61	0.06	0.10	0.14	0.43	0.32	-0.41	0.36	0.75	0.81

주. 모든 상관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

## 2.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세 가지 사회적 관계성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부모관계와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모형에서 각 측정변인의 표준화회귀계수 값은 .4이상으로 유의하였으며 분산추정치도 모두 양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동일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1과 모형2, 모형3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FI의 변화가 .01을 초과하여 낮아지지 않아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계성 변인과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계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4와 모형5의 적합도가 모형3에 비해 나빠지지 않아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계수 경로동일성도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교차회귀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6과 모형7의 적합도가 모형5에 비해 나빠지지 않아 시간에 따른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변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8도 모형7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기에 모형8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모형8에서 구해진 추정치는 그림 1(교우관계), 그림 2(교사관계), 그림 3(부모관계)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는 이해의 편의상 잠재변인 간 계수만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사회적 관계성 모두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의식 또한 사회적 관계성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성이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다시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관계성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성 중에서도 교우관계의 교차회귀계수의 값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청소년 사회적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

	$\chi^2$ (CMIN)	<i>df</i>	TLI	CFI	$\Delta$ CFI	RMSEA
<b>교우관계</b>						
모형1	482,698	153	.962	.975		.030
모형2	502,372	157	.961	.973	-.002	.031
모형3	510,498	163	.962	.973	.000	.030
모형4	647,381	168	.949	.963		.035
모형5	667,702	169	.949	.962	-.001	.035
모형6	668,648	170	.947	.962	.000	.035
모형7	671,375	171	.948	.961	-.001	.035
모형8	674,907	172	.948	.961	.000	.035
<b>교사관계</b>						
모형1	1271,279	213	.926	.947		.046
모형2	1302,060	217	.925	.946	-.001	.046
모형3	1320,362	225	.927	.946	.000	.046
모형4	1477,402	230	.919	.938		.048
모형5	1502,092	231	.919	.937	-.001	.048
모형6	1502,576	232	.918	.937	.000	.048
모형7	1503,664	233	.919	.937	.000	.048
모형8	1504,281	234	.919	.937	.000	.048
<b>부모관계</b>						
모형1	220,526	102	.985	.991		.022
모형2	246,562	106	.983	.989	-.002	.024
모형3	255,104	110	.983	.989	.000	.024
모형4	430,428	115	.965	.976		.034
모형5	444,731	116	.963	.975	-.001	.035
모형6	448,830	117	.963	.975	.000	.035
모형7	449,158	118	.964	.975	.000	.035
모형8	450,758	119	.964	.975	.000	.034

주. 모형1: 동일화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모형2: 공동체의식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교우관계의 경우, 교우관계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교사관계의 경우, 교사관계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부모관계의 경우,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4: 사회적 관계성에 해당하는 잠재변인들(예: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간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5: 모형4에서 공동체의식 잠재변인 간 자기회귀 계수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6: 모형5에서 사회적 관계성에 해당하는 변인에서 공동체의식으로의 교차지연회귀 계수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7: 모형 6에서 공동체의식에서 사회적 관계성으로 가는 교차지연회귀계수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8: 모형7에서 오차공 변량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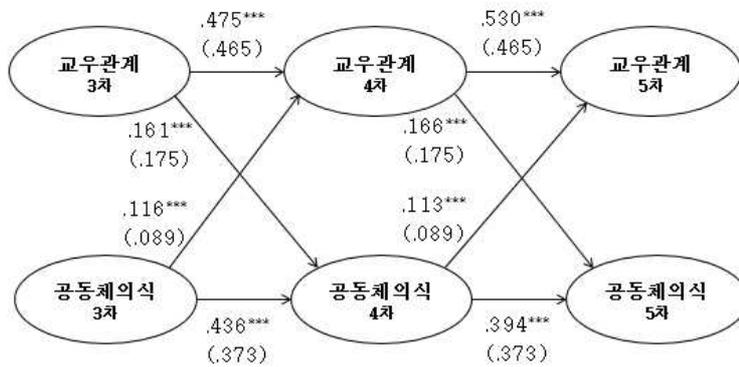


그림 1. 교우관계와 공동체의식 간 최종모형의 추정결과

\*\*\* $p < .001$ , ( ) 안 수치: 비표준화회귀계수, ( ) 밖 수치: 표준화회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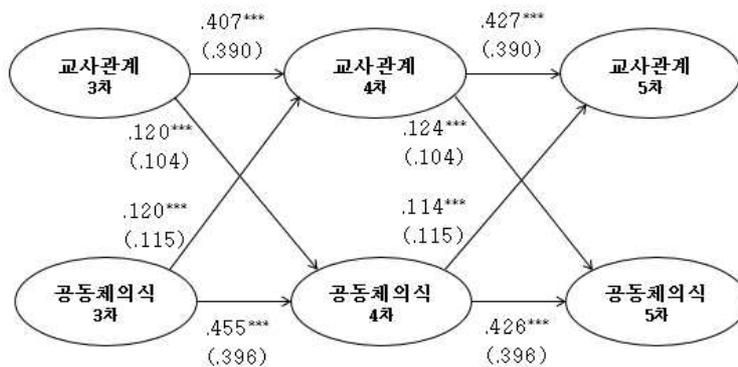


그림 2. 교사관계와 공동체의식 간 최종모형의 추정결과

\*\*\* $p < .001$ , ( ) 안 수치: 비표준화회귀계수, ( ) 밖 수치: 표준화회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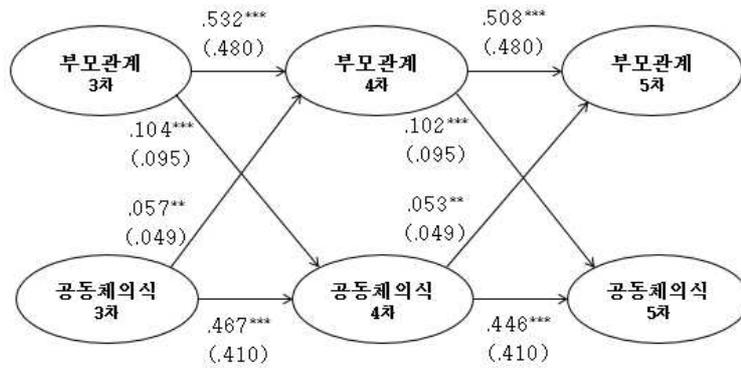


그림 3. 부모관계와 공동체의식 간 최종모형의 추정결과

\*\* $p < .01$ , \*\*\* $p < .001$ , ( ) 안 수치: 비표준화회귀계수, ( ) 밖 수치: 표준화회귀계수

## V. 논 의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시기 동안 시간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 간 상보적 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관계성을 단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상정하기보다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정효선, 2007; 이웅택 외, 2014) 청소년을 둘러싼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를 세 주체인 교우, 교사, 부모로 구분하고 각각의 관계성이 공동체의식과 가지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를 확인한 결과, 두 변인간의 상호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자기회귀효과와 교차지연효과를 모두 보인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성을 가지는 것과 함께 다른 변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공동체의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개인의 특성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변인인 것이다. 사회적 관계성 또한 안정적인 특성이지만,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함께 증진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적 처치를 통해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이 변화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관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을 각종 활동참여에 종속된 결과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이 이후의 공동체 의식을 예측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시도가 그 자체만이 아닌, 사회적 관계와 같은 여타영역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의식이 매개변인으로 역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이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교육적 접근이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높아진 공동체의식은 다시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는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의 상호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 관계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공동체의식의 발달과 함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한 시점에서 청소년이 맺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가 모두 다음 시점의 공동체의식을 유의하게 예측했다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이 공동체의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수준의 공동체의식을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으로 이해하기에 그치기보다는, 육자와의 관계나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맺는 사회적 관계(교우관계, 부모관계)의 부조화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훈련이나 개입은 대부분 봉사활동참여와 같은 체험활동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도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회적 기술이나 교수법, 양육태도를 비롯한, 일상에서 더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방안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식은 집단에 소속되어 공동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Galston, 2001) 사회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내 “자연스러운” 인성교육(김민성, 2015)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이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임으로써 후세대의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 또한 하게 될 것이다.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Student Service and

Philanthropy Project(SSPP)의 경우 프로그램의 가장 초반부에서 학급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기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맺는 사회적 관계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모두가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동체의식에 대한 교우관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가 교우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청소년 시기란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가족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여재훈, 2002) 연구결과 참여자의 91.8%에 이르는 대다수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등(구본영, 김택호, 김인규, 1999) 시기적 특성상 교우관계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증명된 청소년기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넘어,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주요 사회관계가 되는 부모관계, 교사관계의 영향력이 유의함을 함께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단 교우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 학교생활적응, 전반적인 태도 및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관계(오미섭, 2013)와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의존하려는 욕구가 남아있는 부모관계(문주희, 백지숙, 2012)가 병행하여 조화를 이룰 때,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여러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변화가 나타나므로, 주변의 환경과 맥락으로 작용하는 주요 대인관계가 그들의 변화 방향과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단선적으로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우관계를 비롯하여 교사관계, 부모관계가 어떻게 상충하지 않고, 긍정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변수들 간 일방향적 관계를 가정했던 다른 선행연구와는 달리 인과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한계를 가진다. 더 분명한 인과관계의 확인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전보다 높아진 사회적 관계성을 보고한 청소년이 동일하게 공동체의식에서도 항상

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 2차년도 자료를 제외하고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성장과정동안 청소년이 보이는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 간의 상호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이 상호적으로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밝히는 것이므로, 연구문제의 증명을 위해 필요한 조건, 즉 잠재변수의 측정불변성이 만족되는 시기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를 포함하여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잠재변인에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할 경우 CFI 변화량이 .02 이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CFI 값의 변화기준인 .01(Cheung & Rensvold, 2002)을 초과하였기에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응답자들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해석이 중학교 3학년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변화를 학년별로 확인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김민성, 신태수, 허유성, 2012; Shin, Lee, Lee & Park, 2014). 예컨대 김민성 외(2012)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학년 사이에 사회적 관계성의 변화가 중학교 3학년 이후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목표의 사회적 가치 차이를 확인한 Shin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목표의 사회적 가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사회적 관계성 및 공동체 의식이 비교적 불안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개념의 측정불변성을 만족하지 않았던 구체적 시기,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이 갖는 공동체의식 개념과 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식의 측정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동체의식 척도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 세계와 같이 지역적 차원을 넘어선 개념의 공동체의식을 잘 반영하여 측정하고 있지만(김선숙, 안재진, 2012), 기본적으로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정의를 상의하고 광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의 척도에서와 같이 실천의지를 묻는 문항으로 공동체의식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이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관계

성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 상호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연구라는 의의를 가지지만,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기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1985)에 따르면 관계성은 인간의 기본 욕구중 하나로 이를 만족한 경우 심리적 안녕이나 만족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관계적 욕구를 통해 발생하는 개인의 긍정 감정이나 자아에 대한 긍정적 표상 등은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다 더 세분화되고 공동체의식 향상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발전된 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 의식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여 긍정적 효과를 최대 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들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강성희 (1996). **도시 기혼 남녀의 사회적 지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김민성, 신태수, 허유성 (2012). 중고등학교 시기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의 종단적 변화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6(2), 429-459.
- 김상미, 남진열 (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원태 (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체험교육과 시민성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3, 49-88.
- 구본영, 김택호, 김인규 (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No. 36).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민성 (2015).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의 원리와 방향: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에 기반하여. **교육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25-50.
- 김종화, 유희철 (2009). 청소년체육 편: 청소년 수영교실 참여자의 또래관계가 공동체 의식 및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5(1), 609-619.
- 문성호, 문호영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 복지연구**, 11(1), 101-120.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은식, 김중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문주희, 백지숙(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업 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 시설환경**, 10(3), 39-50.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미숙 (2010).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진 (2010). 빈곤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0(3), 895-910.
- 박재숙 (2010). 한국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2), 207-231.
- 여재훈 (2002). **고등학교 남학생의 과외 스포츠활동이 친사회적 행동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미섭 (2013).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1(3), 111-130.
- 이경희 (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은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313-335.
- 이수희 (2004). **북한 이주민의 남한 사회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 정미자 (1995). 아동의 또래 수용도 및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3(2), 103-112.
- 이은주 (201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용택, 유난영, 주현주, 임승희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3), 145-168.
- 이진수 (2000).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회적 관계망과 고독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차선 (2000).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 영향: 제주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록논총**, 2, 109-138.
- 이춘재 (1988). 한국청소년의 신장성장의 유형 변화: 1964년에서 1986년까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48-62.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강태신, 고혜연, 문호영 외 (2009). 청소년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개발. **청소년학연구**, 16(5), 75-97.
- 전득주 (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평민사.
- 정원식 (1987).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출판사.
- 정효선 (2007). **학생 청소년이 인지한 사회적 관계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명주 (2007). **학습자의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인숙, 이정현 (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2) 443-472.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의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7-177.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2009).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376-377, 재인용.
- Barnette, J. J. (2000). Effects of stem and likert response option reversals on survey internal consistency: If you feel the need, there is a better alternative to using those negatively worded stem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0(3), 361-370.
- Bentler, P. M., & Yuan, K. H. (199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mall samples. *Test Statistic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4(2), 181-191.
- Birch, S. H., & Ladd, G. W. (199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school environment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The role of teachers and peers. In Juvonen, Jaana & Wentzel, Kathryn R. (Eds.), *Social motivation:*

-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ambridge studies i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pp. 199-22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llen, K. A. (1989).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7(3), 303-316.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Damon, W. (1997). *The youth charter: How communities can work together to raise standards for all our children*. New York: Free Press, Division of Simon & Schuster.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Dodge, K. A. (1985). *Facets of social interaction and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Children's peer rela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Galston, W. A. (2001).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engagement, and civic educ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4(1), 217-234.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Han, H. S., & Kemple, K. M. (2006). Components of social competence and strategies of support: Considering what to teach and how.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4(3), 241-246.
- Hong, S. H.,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o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Lerner, R. M. (2006). Developmental science, developmental systems, and contemporary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 R. M. Lerner(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pp. 1-17). Hoboken, NJ: Wiley.
- Marion, M. (1997). Guiding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anger. *Young Children, 52*(7), 62-67.
- Merrell, K. W. (1999).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oley, B. E., McFarland, M., Miron, D., Mercer, S., & Ilustre, V. (2002). Changes in college students' attitudes and intentions for civic involvement as a function of service-learning experiences.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9*, 18-26.
- Olsson, U. H., Foss, T., Troye, S. V., & Howell, R. D. (2000). The performance of ML, GLS, and WLS estimation in structure equation modeling under condition of misspecification and nonnormalit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7*(4), 557-595.
- Overton, W. F. (2010). Life-span development: Concepts and issues. In R. M Lerner(Ed.), *The handbook of lifespan development*. Hoboken, NJ: Wiley.
- Pitts, S. C., West, S. G., & Tein, J. Y. (1996). Longitudinal measurement models in evaluation research: Examining stability and chang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9*(4), 333-350.
- Pretty, M. H., Andrews, L., & Collet, C. (1994). Exploring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ationship to loneli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4), 346-358.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i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6), 598-611.

-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y sense of community: Prospect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 Schriesheim, C. A., Eisenbach, R. J., & Hill, K. D. (1991) The effect of negation and polar opposite item reversals on questionnaire reliability and validity: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Educ. Psychol. Meas*, 51, 67-78.
- Shin, J., Lee, S-Y., Lee, Y-K., & Park, S. (2014, 02). Adolescents' perception changes about their goal characteristics. Paper presented at the 3rd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and Behavioral Psychology, Singapore.
- Watson, M. F., & Protinsky, H. O. (1988). Black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Effects of perceived family structure. *Family Relations*, 37(3), 288-292.
- Youniss, J., McLellan, J. A., & Yates, M. (1997). What we know about engendering civic ident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620-631.
- Zigler, E., & Trickett, P. K. (1978). I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33(9), 789.
- Zwaans, A., Dam, G., & Volman, M., (2006). Teachers' goals regarding social competence. *Europ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9(2), 181-202.

## ABSTRACT

### Reciprocal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

Park, Soowon\* · Kim, Saetbyul\*\*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reciprocal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 sense of community by means of autoregressive cross-legged modeling. Social relationships have been examined through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peers and teachers. A sense of community has been conceptualized through a number of different dimensions, such as societies and the world, with the exception of direct personal relations. According to the 3rd, 4th, and 5th years panel data,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gathered from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involvement and a sense of community are interdepend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s can improve the sense of community and vice versa. Therefore, social relationships are important in adolescents' sense of socie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f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adolescents focus on improving one's relationships with others, especially with one's peers, it will enhance the subjects' sense of community.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social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parent relationship

투고일: 2015. 11. 18, 심사일: 2016. 3. 14, 심사완료일: 2016. 3. 21

---

\*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isabr@daum.net